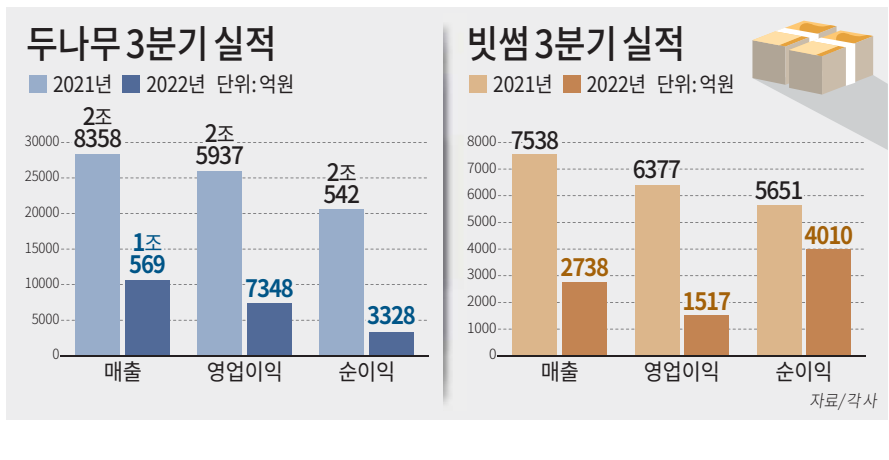
가상자산거래소, 3분기 성적표 처참… 영업익 70% 이상 ⬇

긴축·루나 등 각종 악재에 시장 휘청
두나무 전년대비 영업익 71.7% 감소
빗썸 매출 64%, 순이익 93% 하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3분기까지 성적표는 처참했다. 긴축 여파, 루나·FTX 사태 등 각종 악재에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34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조5937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7% 감소한 수치다. 또한 매출과 순이익에서도 1조569억원(-62.7%), 3327억원(-83.8%)으로 큰 폭 감소했다.

다른 거래소에서도 실적 감소세가 이어졌다. 빗썸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역시 151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21% 줄었다.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63.68%, 92.90% 줄어든 2738억원, 401억원을 기록했다.

점유율 3위인 코인원도 올해 매출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기에는 다소가 거리가 멀다. 컴투스홀딩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30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인 1735억원과는 차이가 벌어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는 가상자산에 이례적인 관심이 모이면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실적이 치솟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거래소간 경쟁에 더해 해외 거래소도 국내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 이전 수준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 수수료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업계의 고질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매출의 99% 가량을 거래 수수료로 거둬들이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할 경우 곧바로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빗썸은 올3분기까지 매출에서 수수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7%에 달했다.

두나무의 경우 일부 '서비스제공 매출' 확대에 성공하면서 수수료 매출 비중을 소폭 낮췄다. 다만, 이마저도 99.47%에서 98.07%로 1.40%포인트 낮췄지만 리스크 극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서비스제공 매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며 "거래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매출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나무는 NFT(대체불가토큰) 사업 진출을 위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합작법인 레벨스를 출범시킨 바 있다. 빗썸은 자회사 빗썸메타를 통한 NFT 플랫폼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빗 역시 NFT 마켓 플레이스 개편 및 위드컬쳐, 세이브더칠드런 등 과의 MOU를 통한 NFT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전날부터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의 계좌연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점유율 뒤집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타 거래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자산운용사, 5개 이하 핵심종목 ETF 동시상장

투자자, 미래에셋 테슬라 ETF 최다 선택
직접투자-변동성 완화 효과 동시 추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5개 이하 소수 핵심종목만 담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동시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테슬라채권혼합Fn ETF'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삼성·미래·KB·한투·한화·신한자산운용 등 6개 운용사는 단일 종목 또는 5개 이하 핵심종목에 압축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 ETF 6종을 동시 상장했다.

상장 당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테슬라채권혼합Fn ETF'가 거래대금 12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ACE) 엔비디아 채권혼합 블룸버그' 58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올해 신규 상장한 전체 ETF의 상장 당일 거래대금 순으로도 4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테슬라채권혼합Fn ETF'는 미국 대표 기술주인 테슬라와 국채 3~10년물 9종목으로 구성된 혼합형 ETF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채권의 안전성에 동시에 투자한다. 주식 29.5%, 채권 70.5%로 구성돼 개별주식 직접투자 효과와 변동성 완화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나머지 신규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신한자산운용의 '쏠(SOL) 미국 톱(TOP)5채권 혼합40 솔액티브(Solactive)',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삼성전자 채권혼합 와이즈(Wise)', KB자산운용의 'KB스타(STAR) 삼성그룹 톱(TOP)3 채권혼합 블룸버그',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ARIRANG) 애플(Apple) 채권혼합Fn'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과 채권을 각 10종 이상 담아야 했던 혼합형 ETF는 지난 8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주식, 채권 상관없이 10종목 이상 구성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운용사들은 40% 이내 주식과 나머지를 채권으로 구성해 개별 주식 직접투자 효과와 채권투자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혼합형 ETF를 선보였다. 퇴직연금 계좌로 100% 투자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해외주식보다 낮은 세율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다올금융그룹, 'DAOL 벤처 챌린지' 개최

다올금융그룹과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지난 29일 'DAOL Venture Challenge 2022'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DAOL 벤처 챌린지(Venture Challenge)'는 ESG경영 실천을 위한 다올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최석종 다올금융그룹 부회장(중간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창규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중간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올금융그룹

DL건설, 면목·고척 모아타운 시공권 확보

"서울시 모아타운 형성 기여 할 것"

DL건설은 이달 서울에서 2건의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만호 이상의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DL건설이 지난 26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한 면목동 일대에 속한 곳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공동주택의 경우 총 280세대로 구성됐다. 실착공 후 약 33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사업을 통해 면목동 지역 내 약 185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또한 서울시에서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2개동, 공동주택 1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26개월이다.

/김대환 기자 kdh@

동원산업 소액주주 소송 제기
"주식매수청구가, 상향 해야"

1주당 14만3954원 증액 요구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해 통합 지주사로 올라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상향 조정된 합병가액 수준에 맞춰 증액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주 곽모씨 외 7명이 동원산업에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시했다. 소액주주들은 동원산업 보통주 2만 3611주의 매수가격을 1주당 기존 23만 8186원에서 38만 2140원으로 14만 3954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동원산업은 지난 2일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등기를 마친 상태다. 동원산업의 산술평균 주가를 24만8961원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주당 19만113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가치는 낮게,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가치는 높게 평가해 동원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주주 가치 제고와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합병가액을 38만21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주식 매입에 들여야 할 비용이 늘어나 동원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미경 기자

KB증권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대행

KB증권이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KB증권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함께 KB증권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세금 신고대행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 /박미경 기자

58개사 2억2551만주 내달 의무보유 해제

예탁원 유가증권 9개사, 코스닥 49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58개사 2억2551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9개사 5889만주이고, 코스닥시장은 49개사 1억6662만주다.

/박미경 기자